



홈가드닝 ... 반려식물 키우기 실패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집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식물이나 홈가드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반려식물이란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처럼 교감하면서 기르는 식물을 일컫는 말이다.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 (brunch.co.kr)에 게시된 홈가드닝을 이미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홈가드닝 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와 그에 대한 해답’ (brunch.co.kr/@bc3574057f2a403/32)을 소개한다. 이를 참고해 반려식물키우기에 성공해 보자.

◆ 매일 물을 주는데 자꾸 식물이 죽어요.

실외 식물과 달리 화분에 심은 실내 식물은 기르는 사람이 주는 물의 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적당한 물 주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을 줄 때는 화분 위 겉흙을 만져보고 판단한다. 겉흙을 조금 집어 손가락 끝으로 문질러 보아 살짝 부스러질 정도로 말랐을 때 물을 준다.

◆ 식물을 플라스틱 포트째 키우고 있는데 힘없어 보여요.

플라스틱 포트 그대로 키워도 식물이 자라는 데 무리가 없지만, 대개 포트에 담긴 흙은 영양분이 없는 인공 흙이다. 관리를 잘못해 흙이 바짝 마르면 그 후로는 물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화분과 배양토를 함께 구입해 식물을 옮겨 심은 후 키우는 것이 좋다.



◆ 흙 사이의 통기성과 통풍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흙의 통기성은 뿌리 호흡과 뿌리의 양, 수분 흡수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 흙에 심은 식물은 1~2년간 분갈이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물 주기와 물 빠짐에 문제가 발생한다. 통기성을 좋게 하려면 적절한 분갈이

와 물 주기가 관건이다. 분갈이 하는법은 150cm 이상의 큰 식물이 아닌 경우, 1년에 한 번 봄이나 가을에 반드시 하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는 물주기 법칙을 잘 지켜야 한다. 홈가드닝에서 원활한 통풍은 원활한 공기 순환을 뜻하므로 가능하다면 맞바람이 칠 수 있도록 양쪽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

◆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었더니 잎이 노랗게 바랬어요.

그들 식물이 아니라면 보통 빛이 잘 드는 곳에 식물을 두고 키워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햇빛에 직접 노출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집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공기정화식물은 오랜 시간 직사광선을 쬐면 잎의 색이 얼어지고 약해진다. 따라서 창가 등 창문에 햇빛이 한 번 거쳐서 들어오는 반그늘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좋다.

◆ 빛이 좋을 때 앞에 직접 분무했는데 잎이 타들어 가요.

식물이 화상을 입는 걸 렌즈 현상이라 한다. 물방울이 맺힌 잎사귀에 직사광선이 와 닿으면 그 부분만 노랗게 타는 것이다. 렌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강하지 않은 오전 9~10시경에 물을 주고 되도록 잎에 물이 직접 닿지 않게 한다. 타 들어간 잎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니 떼어 내 주는 것이 좋다.

◆ 잘 자라고 있는데도 비료를 줘야 하나요?

비료를 많이 준다고 모든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아니다. 생육 초기나 식물이 왕성하게 성장할 때는 질소질 비료를 주고, 뿌리 활동이 정지된 저온기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다. 뿌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하이포닉스 같은 액체비료를 잎과 줄기 부위에 분무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비료는 식물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동안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잎이 시들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물을 충분히 주니 다시 싱싱해졌어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나 잎 보기 식물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물이 부족해서 시들어 보인 것일 뿐 완전히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면 다시 싱싱해진다.

◆ 식물이 약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식물은 저마다 요구하는 생육환경이 다르다. 건조하고 과하게 습하며 통풍불량, 일광부족 등 생육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허약해진다. 결국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병이 발생하게 된다.

◆ 식물 잎을 닦아주는 이유는 뭔가요?

식물은 잎의 기공을 통해 호흡과 광합성을 한다. 실내 공기정화식물에는 먼지가 쉽게 쌓이는데 제거해 주지 않으면 먼지가 잎의 기공을 막아 식물의 원활한 생장을 방해한다. 샤워기 등을 이용해 수압으로 잎이 꺾이지 않게 잎 뒷면을 손으로 잘 만지치고 닦아준다. 다육식물이나 그늘 식물은 젖은 걸레를 이용해 잎을 닦아준다.



◆ 식물이 가장 쉽게 입는 병충해와 병은 무엇인가요?

가장 쉽게 생기는 해충은 진딧물이다. 진딧물은 느리게 움직이는 곤충으로 어린잎의 즙액을 좋아해 새싹이나 꽃봉오리의 잎 뒤에 숨어 즙액을 빨아먹고 잎을 쭈글쭈글하게 하거나 마르게 해 식물을 기형으로 만든다. 진딧물은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잘 생기니 식물을 더운 장소에 두거나 화분을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쉽게 생기는 병은 그을음병과 탄저병이다. 그을음병은 그을음 같은 가루가 잎에 묻어 있는데 보통 잎식물에 많이 나타난다. 진딧물 등 흡즙성 해충의 배설물에 2차적으로 기생하는 부생성 그을음병균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충을 제거하거나 해충 방제용 다이센을 살포해 치료한다. 탄저병에 걸린 식물은 잎에 직경 0.5~1cm 크기의 검은색 또는 갈색 반점이 생긴다. 통풍이 잘되지 않거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며 다이센, 캡탄을 월 1~2회 정기적으로 살포해 예방한다.

사진=shutterstock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